

## 하나로 뭉쳐 경쟁력 키우자...‘통합시계’ 2월 분수령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처리 시한 압박...이달 넘기면 선거전 추진 불가  
정부 핵심 특례 조정 요구...실질 권한·재정 확보 등 관건  
지방선거 통합 단체장 선거 구도 변화...지역 정치권 촉각

광주·전남이 40년 행정 경계를 넘어 대통합의 새로운 역사에 도전하고 있다. 인구 320만 메가시티 구상 아래 산업·교통·재정 구조 전반을 다시 짜는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국과도 맞물리며 행정통합이 이번 설 연휴 지역 사회의 최대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관련기사 3·6·10·23면

1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도는 인구 320만명 초광역 단일 행정체계 구축을 목표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2월 국회 통과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광주·전남의 통합 추진에는 높아지는 지역 소멸 위험과 수도권 1권 체제에 대응하려는 생존 전략이 깔려 있다. 그동안 군공화 이전 등 주요 현안마다 엇박자를 냈지만, GRDP 정체와 청년 인구 유출, 지방소멸 위험 지수 상승은 지역 사회에 ‘통합 없이는 돌파구가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이 같은 위기의식은 단순한 행정 결합을 넘어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초광역 구상으로 이어졌다. 광주의 인공지능(AI)·미래모빌리티 산업 역량과 전남의 에너지·해양·우주 산업 기반을 결합해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교통·산업·재정 등 광역 단위 정책을 하나의 틀에서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 요인으로 거론된다. 특히 ‘1시간 생활권’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광주 도심과 전남 주요 도시 간 이동

편의가 개선되고, 의료·교육·문화 인프라 접근성도 넓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무안국제공항과 광주송정역, 광역 교통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 수도권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전남 동부권 일각에서는 행정 중심이 특정 지역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고, 일부 군 단위 지역에서는 재정·행정 지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기에 통합의 제도적 기반이 될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핵심 특례 조정 가능성에 직면하면서 논의는 더욱 복잡해졌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제시한 특례 가운데 상당수에 대해 정부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안 내용이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통합이 곧바로 ‘장밋빛 미래’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에는 신중한 시각도 존재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통합 일정과 관련해 사실상 시한을 제시했다. 김민석 총리는 전남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선거 전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2면에 계속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민속놀이 체험하는 어린이들’ 민속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12일 오전 광주 광산구 선암동 선운송유치원에서 열린 ‘설맞이 전통문화 체험’에서 한복을 곁들여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전통 민속놀이인 윷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설’, ‘설날’은 음력 정월 첫날을 이르는 말로 추석과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명절이다. 가족들이 모여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어른들에게 세배를 올리며,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풍습이 있다. 이날을 전후해 윷놀이·널뛰기·연날리기 같은 세시 민속놀이를 행하기도 한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전남광주특별시 4대 권역 개발...80만 인구 유입”

김영록 지사, 3+1축 산업 대부흥 비전 발표  
450조 투자 목표...40개 앵커기업 유치 총력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전남과 광주가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초광역 산업 재편 구상을 공식화했다.

김영록 지사는 1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400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Y4-노믹스 선언’과 함께 ‘전남·광주 3+1축 산업 대부흥 비전’을 발표하며, 통합의 핵심을 ‘경제’로 규정했다.

김 지사는 “지금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지도에 다시 그리는 전환점”이라며 “산업을 일으켜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이 돌아오고, 인구가 증가하는 400만 통

합특별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제시한 Y4-노믹스는 전남·광주를 4대 권역으로 재편해 새로운 수직 성장축(Y-Core)을 구축하겠다는 국가 경제 전략이다. 수도권 일극 구조를 넘어서는 모형을 지향하며, 그 중심에는 청년(Youth)을 두겠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청년이 돌아와 성공 스토리를 써 내려갈 수 있는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표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80만 인구 유입과 450조원 투자유치를 목표로 제시하고, 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400만 특별시 기업유치 특별



김영록 도지사가 12일 400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실현을 위한 전남·광주 3+1축 산업 대부흥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전담반’을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광주권·서부권·동부권 3축에 남부권을 포함한 ‘3+1축’ 4대 권역 체계로 재편하고, 총 4000만평 규모 특화산업단지와 첨단산업 신도시를 조성해 4대 권역별 40개

앵커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광주권에는 산업용지 500만평과 배후 도시 500만평 등 총 1000만평 부지에 AI·반도체·미래모빌리티·바이오 중심 글로벌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서부권에는 산업용지 400만평과 배후 도시 700만평 등 총 1100만평 부지에 에너지·해양엔지니어링·첨단 반도체 중심 산업지대를 구축한다.

동부권에는 산업용지 500만평과 배후 도시 500만평 등 총 1000만평 부지에 이차전지·반도체·로봇·우주항공 중심 스마트 혁신제조 수도를 조성한다.

남부권에는 산업용지 300만평과 배후 도시 500만평 등 총 800만평 부지에 K-푸드·그린바이오 핵심 거점을 조성한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 행복한 설 특집 지면안내

- 통합시장·교육감 누가 뛰나 .....3면
- 골목상권 버팀목 ‘민생금융’ .....4면
- 대·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 다채 .....5면
- 광주·전남 40년만에 하나되나 .....6면
- 강진청자축제 ‘500년 청자문화’ .....7면
- 돌보이는 ‘남구 고향사랑기부’ .....11면
- 가볼만한 광주·전남 .....12~13면
- 가는 곳마다 ‘문화 진수성찬’ .....18면
- 설 연휴 볼만한 스포츠 .....19면

설 연휴 날씨		
14일(토)		-2~17
15일(일)		1~18
16일(월)		-1~11
17일(화)		-1~12
18일(수)		-3~11

2월16일~18일자 신문 읽다  
온라인 뉴스는 gwangnam.co.kr에서 계속

광주·전남 행정통합

내일이 밝는  
기회도시 광주 + OK! 지금은  
전남시대

# 합치면 특별해집니다

지역은 더 부강하게

☒ 경쟁 불필요  
☒ 특별한 보상  
☒ 일자리 증가

복지는 더 따뜻하게

☒ 통합 복지서비스 마련  
☒ 생애전주기 돌봄 강화

교통은 더 빠르게

☒ 60분 생활권 완성  
☒ 교통 할인 혜택 통합

생활은 더 즐겁게

☒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확대  
☒ 축제·행사 공동개최

일상은 더 안전하게

☒ 광역 의료 체계 구축  
☒ 의료자원 공동활용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사·도민 소통 플랫폼